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Safety Education for Workers in Children's Facilities)

김다희*

Kim, Da-Hee

요약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1. 서론

2016년 4월,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 길에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생명 법안’이 발의되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었다.

2. 본론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세워야 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의사,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시설과 장비 확보 (강의실 면적 및 체험 교구의 확보 등) 등 전문 교육이 가능한 요건이 확보되어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생 인원이 지정된다.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이 4명 상주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과 장비에 맞게 한 교육당 최대 17명의 교육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24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2. 교육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나누어 예약받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요일에 따라 월, 화는 이론 교육, 수, 목, 금은 실습 교육을 2시간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 교육 간격이 길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내·외과적인 응급처치, 성인, 소아, 영아를 포함한 연령별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으로 진행된다. 이론 교육은 ZOOM을 통해 대면 교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시간 소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습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여 직접 몸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며, 실제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대면 교육 전후 교육실 및 교육장비를 소독하고, 교육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교육은 각 기관으로의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사 dh3927@childsaf.or.kr

표 1.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교육 참여자 현황

| | 2021년 (21.08~21.12) | | | 2022년 (22.01~22.09) | | |
|-----------|---------------------|-------|------------|---------------------|-------|------------|
| | 이론 교육 | 실습 교육 | 합계 | 이론 교육 | 실습 교육 | 합계 |
| 교육 횟수 (회) | 36 | 43 | 79 | 36 | 46 | 82 |
| 교육 인원 (명) | 310 | 304 | 614 | 213 | 305 | 518 |

3. 결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엔 단순 성인 심폐소생술 교육만 진행했었다면, 법률 제정 이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상황별 응급처치 실습 교육이 추가되었고,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연령별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등 심화 교육이 가능해졌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본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전체 99.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2.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교육 만족도 조사 (총 518명 참여)

| | 온라인 교육진행에 만족하십니까? | | 오프라인 교육진행에 만족하십니까? | | 본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응답자(명) | 응답률 | 응답자(명) | 응답률 | 응답자(명) | 응답률 |
| 매우 그렇다 | 415 | 80.1% | 434 | 73.9% | 468 | 90.3% |
| 그렇다 | 88 | 17% | 78 | 13.3% | 46 | 8.9% |
| 보통 | 8 | 1.5% | 4 | 0.7% | 4 | 0.8% |
| 그렇지 않다 | 2 | 0.4% | 1 | 0.2% | 0 | 0% |
| 매우 그렇지 않다 | 0 | 0% | 0 | 0% | 0 | 0% |
| 기타 | 5 | 1% | 0 | 0% | 0 | 0%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해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각종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들의 어린이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0년05월19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pp.1-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 제정·개정이유.